2022 BIBLE ON 365-330

1126(토) 고린도후서 10-13장   참된 사도, 바울

바울은 성도들에게만 엄격했던 게 아닙니다.
스스로 복음에 철저했고 온전히 복종한 사람입니다.
그는 출신/학벌/지식/실력/영적 체험이 출중했지만
복음을 〈드러내고자〉 스스로를 〈가렸습니다.〉
(6:2-3,10장,11:6,22,12:7,11, 빌3:4-8)

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과 공격,
투옥과 매 맞음, 죽음, 배고픔, 추위와 헐벗음,
사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.
대상과 상황에 자신을 맞추며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.
(6:4-5,11:7-9,23-30,10:23-24, 고전9:22)

반면, 거짓사도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했으며(5:12,10:12),
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 지식과 영성을 뽐냈습니다.
지식/자랑/영성에 집착하던 교인들은 그들을 환영했고
스스로를 낮춘 바울을 멸시하며 얕보았습니다.
(1:24, 10:12, 11:4,7-9,19-20, 고전4:15)

바울은 매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했습니다(2:11,7:3,10:1).
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복음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차렸습니다.
자신을 증명하는 데 몰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
예할 것은 예하고,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로 답했습니다.
(1:17-20,18-23, 10:5)

바울은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함을 자랑했습니다(10:7,11:18).
스펙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했습니다(10:8).
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(12:19).
바울의 삶은 이미 그가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.

“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
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(10:18)”

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?
❶ 스스로 칭찬합니까, 주께서 칭찬하십니까?
❷ 나의 〈육체〉를 자랑합니까, 주님을 자랑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고린도후전서 10-13장